

강나루 전설



이 청 준 <소설가>

순녀(秋順女)가 고향 강가*나루목을 떠날 때는 그녀의 가없는 꿈추 오라비 강돌(江鬪)을 버릴 생각이 아니었다. 보다는 소원인 '공무' 만 끝 나면 반드시 다시 나루목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자신이 오라비를 보살피며 평생을 곁에서 함께 하리라 하였다. 외모가 비록 흉해 보이더라도 둘 사이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혈육지간이었다. 그 위에 그간 순녀는 오라비에게 남달리 애뜻한 마음의 빛까지 지고 있었다. 순녀의 기억엔 어렸을때부터 나룻배를 짓는 늙은 아버지와 꿈추 오라비가 식구의 전부였다. 아버지가 짓는 작은 배를 타고 오라비는 물건너 면소재지까지 아침 저녁 십리길 먼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험가 알 수 없는 열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번에는 그 오라비 대신 순녀가 강을 건너 국민학교를 다녔다. 오라비는 제 팔에 학교를 그만두고 누이를 위해 배를 짓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린 오라비는 불구의 몸으로 6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룻배를 저었다. 그리고 그 6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녀를 다시 대처 중학교까지 힘든 공부

길을 내보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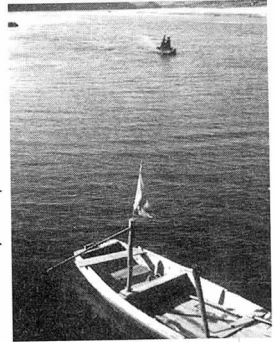
“나는 못 배웠으니 너라도 배우거라. 내 뒤통까지 두 배로 열심히 배워야 한다. 나는 여기서 너의 앞길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노를 저을 테다.”

그간 순녀에게도 그 배움에 대한 꿈이 은밀히 자라 숨어 있던 터였다. 순녀는 그래 그 오라비에게 마음으로 부터의 굳은 다짐을 남기고 강을 떠났던 것이었다.

“오빠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힘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돌아와선 평생토록 곁에서 오빠를 보살피며 함께 살겠어요.”

그러나 순녀는 그때의 굳은 다짐과는 반대로 다시는 오라비에게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녀의 사정이 차츰 그렇게 되어 갔다. 애초엔 오라비와 그 고향땅이 싫어져서였다. 대치 아이들과 섞여 한 일년을 지내다보니 자신의 가난이 무작정 지켜워지기 시작했다. 오라비가 보내 오는 보잘것없는 학자금엔 언제나 오라비의 남루한 땀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부끄러운 땀 냄새가 싫어 오라비에 대한 고마움은 커녕 보기 싫은 그의 육신의 형상마저 까닭모를 미움증을 불러일으키곤 하였다. 그래 그녀는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일찌감치 돈벌이 취직길로 들어서 버린 것이었다. 나루목의 가난한 꿈추 오라비에게로는 돈을 벌 때까지 아예 돌아가지 않기로 작심하고.

이후 그녀는 어떤 직물 공장에서 종적을 감춘채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로 십여년 뒤에는 얼마간의 돈을 모아 쥘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도 아직 나루목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했다. 그쯤으로 간단히 돈벌이에의 집념을 놓아 버릴 수가 없었다. 보다도 기왕 집을 떠나 지내 온 이 마당에 가능하면 그 가난한 오라비와 나루목으로부터 자신을



영영 숨겨 버리고 싶었다. 오라비도 그쯤에선 이미 기미를 알아차리고, 실의 속에 단념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이제는 그 오라비가 두려웠다. 그 두려움 때문에도 오라비에게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더욱 멀리 숨기고 지내야 하였다. 기왕 자신을 숨기고 살 바에는 좀더 돈벌이가 나은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결국 숨어 사는 사람 처지로는 그 중 벌이가 괜찮아 보이는 술집 동네로 일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다시 십여년 동안 그녀의 젊음을 깡그리 팔아서 상당한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돈이 제법 손에 쥐어지니 오라비에 대한 두려움도 덜해졌다. 이젠 얼마간 떳떳한 모습으로 그 오라비에게로 돌아 갈 수가 있었다. 오라비가 원한다면 나룻배 대신 큰 놀잇배를 사 드릴 수도 있었다. 아니라면 적당한 과수원이라도 사들여 둘이서 함께 가꾸며 살수도 있었다.

그러나 순녀는 아직도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간 너무 긴 세월이 흘러서 오라비나 나루목의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진정 그녀를 어렵게 만든 것은 그런 세월의 흐름 때문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바로 그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웬지 언제부턴가 세상사 모든 일이 그저 부질없고 허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까지 하였다. 그 뼈 시리고 가슴 아픈 부끄러움, 그것이 그녀를 돌아갈 수 없게 하였다. 그녀는 그런 원망스럽고 부끄러운 심사 속에서 이제는 꼭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그러나 한 번은 가 봐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빗짐의 마음 상태 속에서 다시 몇 년의 세월을 흘러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 마흔 살이 되던 해에 우연찮게 한 가지 고향 소식을 들었다. 고향 마을은 강 아래 쪽에 큰 댐이 생겨 머지않아 나루목 근처까지 물이 차 오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 소식에 순녀는 마침내 오랫동안 미뤄 오던 고향길을 결심하고 나

섰다. 미구에 사라져 갈 그 고향 나무목에 대한 애절한 정회가 그녀를 새삼 못 견디게 하였다. 중년 고개를 넘어서고 있을 오라비가 아직까지 거기서 배를 짓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달음에 나무목으로 달려 내려갔다. 한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강 아래쪽에 과연 큰 댐이 완성되어, 거기 따라 강물도 끊어져 있었다. 기억 속의 옛 오두막과 강나무 근처는 바야흐로 한창 물이 차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끊어진 강물 위에 오라비 강돌의 나룻배가 아직 떠 있는 것이었다. 오라비는 아직도 거기서 배를 띄우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물론 그저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잘 돌아왔다. 나하고 여기서 함께 살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넌 언젠고 한 번은 이 나무목을 다녀가야 할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야 하니까……. 넌 내가 언제나 너를 용서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가야만 했던 말이다. 나는 네게 그걸 말해 주기 위해 지금까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이곳이 아주 물 속으로 가라앉아 사라져 가기 전에……. 강물의 흐름이 아주 끊어지기 전에, 네가 돌아온 것 천만다행이다…….”

자신을 버린 누이를 용서하기 위해, 그녀가 그의 용서를 알고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기 위해 오라비는 기다려온 것이었다. 기침 소리에 병색이 완연한 야윈 육신과 힘겨운 거동으로 나룻배를 저으면서.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병세가 그토록 깊어 있었음인가. 마음속에 더 이상 기다릴 일이 없어진 때문인가. 오라비는 마치 그 누이에 대한 용서의 말로 그가 할 일을 다한 사람처럼 이날밤 허망스레 이승의 누이와 그의 나무목을 영영 등져 가 버린 것이었다. 그로부터 강 나무목의 한 양지 바른 언덕바지에선 그지없이 작고 남루한 꼬추의 무덤이, 그러나 한 여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우람스런 거인의 무덤이 그 덧없는 인간사를 다시 밝고 따스한 전설로 엮어지고 있었다.▲▲